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2021. 11. 30. (화) 14:00~16:00
비대면(온라인 ZOOM)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일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개정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계 속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피해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며,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것이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온·오프라인 속에서 심각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에 노출되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된 아청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배상

* 좌장: 서순성 변호사(법무법인 유(원)/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단장)

순서	시간	내용
인사	14:00-14:10	인사 및 토론회 안내
주제 발표	14:10-15:00	발제1 배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천지인/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발제2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토론	15:00-15:10	토론1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5:10-15:20	토론2 김현아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5:20-5:30	토론3 김대중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5:30-15:40	토론4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15:40-16:00	질의응답 종합토론

관련 문의 십대여성인권센터 김민정 | 유희진 상담원 02-6348-1318

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주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신청링크